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37p, 중고선가치수 140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37p(+1p, WoW), 중고선가치수는 140p(+8p, WoW)를 기록함. 지난주 현대미포조선이 익명의 선사로부터 5만DWT급 MR탱커 4척을 수주했음. 인도기한은 2023년 1분기로 보도됨. (Clarksons)

대우조선해양, Petrobras FPSO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Saipem과 제휴하여 브라질 오일메이저 Petrobras로부터 23억달러 규모 해양플랜트 FPSO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인도 기한은 2025년임. Petrobras는 이 외에도 2기의 FPSO발주잔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Equinor 탱커 입찰 성황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Equinor은 dual-fuelled Aframax탱커 4척과 LNG병커링이 가능한 Dual-fuelled LR2 탱커 3척에 대한 용선 입찰에 많은 선주들이 참가하였다고 발표함. 오퍼 선가는 척당 6,000만달러 상반대에서 8,000만달러 중반대로 제시되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빨간불...끝내 EU에 발목 잡히나

EU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LNG운반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을 제시 못해 심사를 중단한 상태임. 사측에서 제시한 중소사 기술 이전 등 '행태적 조치'보다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도됨. (이데일리)

IEA brings 'good news' to tanker owners with strong oil demand forecast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원유수요를 긍정적으로 전망함. 올해 원유 수요는 일일 540만배럴가량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일일 1억60만 배럴에 도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US, Canadian drillers add rigs as oil prices rise

미국, 캐나다 석유업체들이 유가상승에 따라 굴착기를 추가 가동했다고 보도됨. 미국은 5대 더한 461대, 캐나다는 16대 더한 93대를 가동함. (Upstream)